무용에서 몸 인식과 자아의식의 관계

* 한 혜 리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무용 구조에서 몸 인식의 기능
Ⅲ. 자아의식과 정서의 연계성
1. 의식의 기능
2. 정서 표현체로서의 몸
Ⅳ. 결론
참고문헌

* 경성대학교 예술종합대학 무용학과 교수
논문투고일 : 2023.08.20 논문심사일 : 2023.09.07 게재확정일 : 2023.09.13

/Abstract

A relation between body recognition and self-consciousness in dance

Han, Hea-ree · Kyungsung University

As a study on the process in which body recognition gets clear through self-consciousness in the structure of dance, this study extracted the concept as follows based on three phenomena such as body-related emotion, feeling, and consciousness.

In the structure of dance, body recognition is the basic stage of self-consciousness that requires imagination and creativity.

In dance, body recognition is the process in which abstracted body gets clear through perceptual activity accompanied by embodied knowledge based on short-term memories about body felt through senses.

Body recognition that gets clear in the process of self-consciousness recomposes self by consciousness that aims for the better future based on something perceived by senses and intuition.

Even though the expression of emotions and meanings given to each emotion can be changed depending on learning or culture, the emotion itself depends on brain that has been congenitally set up as a biologically-determined process.

Emotion has a relationship with self as a result of adapting to external environment and a function to control the current state of survival.

The feeling about what has been experienced is selected through the structure called ‘emotion’, and revealed on body(self) while the emotion is drawn on our bodies as psychological patterns.

〈key words〉 body recognition, self-consciousness, emotion, imagination, dance
〈주요어〉 몸 인식, 자기의식, 정서, 상상, 무용

Ⅰ 서론

공연을 목적으로 안무되어 발표되는 무용은 목적에 따라 진행과정과 기획이 달라진다. 시간과 장소가 제한되어 있던 무대 무용은 전자 디지털 시대를 지나면서 미디어의 복합성에 적응하는 동시에 작품성과 상품성의 대립 구도도 붕괴되어 작품으로서의 무용은 해체되어 새롭게 연결되는 복합적 연계를 통해 또 다른 가치가 출현하기도 한다. 동시대 사회에서 무용은 공연, 교육, 보건, 복지, 여가 및 entertainment 분야에서 범용화 된 전자, 디지털 미디어를 포함한 소통 시스템의 기능에 따라 접근성이 확장되고 있다.

'몸 인식과 자아의식의 관계'는 사고와 움직임(혹은 행동)이 동시에 발생하는 몸에 대한 추상적 인식이 자아의식으로 명확해 지는 과정에서 무용의 기능에 대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몸은 사고의 주체인 동시에 표현체(또는 표현의 도구)이다. 그리고 무용은 과거의 경험에 기반 한 기억 지식으로 습관적 혹은 자동적으로 행하는 유형적인 춤의 답습이나 장르 계승적 무용과 차별화 된다.

몸 인식에서의 몸은 자유로운 몸으로 어디에도 구속되거나 구애拘礙 받지 않는 '마음의 몸 · psyche'으로 결국, 개별성의 다른 용어이며 분류할 수 없는 특별함 혹은 유일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몸으로 인식되는 개별성과 특별함은 의식의 과정을 통해 명확해 진다는 것이 본 논제이다.

무용의 구조에서 자신의 몸을 인식하는 과정은 자아가 심적이고 지적인 현상을 감각하는 자아 인식이다.

몸에 대한 현실적이고 기능적인 이해는 자아 감각을 필수 조건으로 한다. 인식 즉 앎의 행위에서 자아 감각이 없다면 생성되는 생각의 주인이 없는 것이고, 따라서 자아감각의 주체인 몸이 곧 생각의 주체라는 논리는 타당성을 갖는다. 자아 감각은 몸의 개별적 역사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현재의 나'를 깨닫고 '미래의 나'를 기대하는 의식의 기능에 의해 자아의식이 된다.

감각이 '앎' 즉 지식에 필수 조건인 이유는 분류와 판단 그리고 이해의 시작은 물론, 진행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자아 감각으로의 몸 인식은 정서의 표현체로 몸을 이해하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아감각으로 인식한 정서는 곧 자아의식이 된다는 논리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몸 인식이 자아의식으로 연계되는 과정에서 무용은 체화된 지식을 배경으로 '현재의 나'에 대한 왜곡과 편견의 경계를 넘어서게 하는 호기심과 기대심리 즉 상상력으로 자신의 개별성과 특별함을 의식하는 구조로 기능한다. 즉, 무용의 예술적 요소인 상상은 자아의식의 무용에서 몸 인식에 근거한 개인적 바램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몸으로 표현되는 정서의 구성 요소로 기능한다. 또한 정체성과 정서는 개인적 몸과 함께 지속되고 또 변화를 계속한다.

몸 인식을 통한 자아의식은 자유로운 몸 즉, 분류되지 않는 독보적이고 특별한 고유성의 발견과정이다.

본 연구는 몸 인식이 자아의식으로 연계되는 과정을, 무용의 요소인 감각과 상상이 발현되는 무용 구조에서 몸에 대한 자아 감각이 마음의 패턴인 몸 이미지로 연계되어, 정체성과 정서로 개념화 되는 체계로 결론을 유출하였다.

선행연구로는 "무용 체험과 인식과의 관계 연구"(한혜리, 2014), "무용의 자기성찰 기능과 구조"(한혜리, 2021)가 있다.

Ⅱ 무용 구조에서 몸 인식의 기능

무용에서 몸 인식은 추상화 된 몸이 자아 감각으로 명확해 지는 과정에서 분류될 수 없는 특별한 자아를 의식하는 과정이다. 몸 인식의 과정에 기능하는 두 가지는 감각[1]과 상상력이다. 몸 인식 과정에서 자아 감각이 가장 원초적인 이유는 감각의 주체와 대상이 같은 몸이기 때문이다.

몸 인식은 감각이 외부와의 관계에서 의식이 일깨워 지는 과정이다. 인간은 물리적 존재가 아니라 감각을 가진 살로 이루어진 생명체이다. 감각은 모든 존재들과의 작용들이 가능해지게 해 준다. 즉 우주에 생명을 불어 넣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다. 그리고 그 우주 안에서 나의 위치를 알아차리고, 미약하지만 특별하고 유일한 자신을 의식할 수 있는 능력이다. 따라서 몸 인식은 감각 즉 몸을 느끼는 것에서 출발한다. Damasio, A.(1999:19, 62)의 주장처럼 느낌은 자아감각(sense of self)이 생겨나야 그 느낌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느낌으로부터 의식이 생성되는데, 이러한 의식은 자아의 개별적 특성이 행동이나 태도 즉 몸에 내재하도록 그 방식과 가능성을

[1] 감성(sensitivity)과 감각(sensibility) 두 개념은 본래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이지만, 감성이 한 인간의 성격에 주안점을 둔 개념이라면 감각은 보다 인식론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정우, 2010:343 참조).

열어준다. 몸과 상상력을 연결하는 체계에서의 자아의식이 심적 이미지를 생성한다.

자아감각은 직관 또는 직감, 개인적 경험이나 지식, 적절한 때 등을 조건으로 몸을 인식한다. 상상력이 기능하는 무용 구조의 몸 인식과정에서도 이미지가 생성되는데, 심적 패턴이라고 하는 상상력이 만든 자아감각 진행 과정에서 생성되는 이미지는 스스로 제기한 적이 없는 의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다. 달리 표현 하면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한 느낌이다. 몸 인식은 외부 환경 혹은 자극이라 불리는 것에 대한 즉각적인 느낌으로 분석의 알고리즘적 수준[2]에서 본다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몸을 감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느끼는 몸은 감각한 몸과 이미 알고 있는 경험적 지식 혹은 체화된 지식[3]을 결합해 재구성한다. Minda, John P.(2021, 노태복 역, 2023:244)의 실험에 따르면 "우리는 오직 우리가 아는 것을 지각할 수 있으며, 이미 알고 있어야 우리가 지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지각[4] 으로 재구성된 몸은 감각한 몸과 지각하는 몸의 충돌 사례이기도 하다. 몸에 대한 지각은 자신의 몸에 관한 지식에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몸에 관한 지식은 Damasio가 제시하는 또 다른 개념어로 본다면 '자기기만'이다. 즉 지각 대상인 몸의 복수성 "몸, 몸을 인식하는 주체, 이성적 인식의 주체, 정서적 인식의 주체, 타인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타인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느끼는 주체, 지각, 사고, 의지, 행위 등의 다양한 주체가 경합하는 복수의 자기인 '자기기만'"(Damasio, A., 고현석 역, 2023: 518)에 대한 통합적 인식 과정의 충돌이다. 따라서 우리가 인식하는 몸은 자기기만을 통해 재구성된 몸이다.

몸 인식이 자아의식으로 확장되는 무용의 구조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상상력은 정신활동으로 무용 구조에서 상상력과 동질의 정신활동은 창의력이다. 창의력은 정교한 자아감을 제공하는 확장의식[5] 단계로 현재의 위치에서 과거를 인지하고 미래를 기대하며 자기 주변의 세계를 명확하게 인지하는 장소 감각을 제공한다. 상상력과 창의력이 자아의식의 기능과 유사한 점은 지식의 최대치에서 미래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무용 구조에서 몸 인식은 움직임의 도구로서의 물리적인 몸을 정신작용의 주요 기능인 상상력과 창의력을 통해 실제적이고 명확한 자아의 실체로 알게 되는 과정이

---

2) 알고리즘적 수준 (algorithmic level) ; 과정의 실제 단계들을 찾아내는 (Minda J. Paul, 2021, 노태복 역, 2023 :11).

3) "체화된 지식(enbodied knowledge)이란 우리가 실용적 이해를 통해서 그리고 지각이나 경험을 해서 얻은 능력으로 습득한 것이다"(Roberts, S., 2020, 조은경 역, 2022 : 14). "용어가 암시하듯 이 지식은 뇌가 아닌 몸에 있다"(15).

4) "감각이라는 것이 원초적=생리적 느낌의 차원이고 인식이 개념적 수준의 포착이라면 지각은 감각과 인식 사이의 과정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정우, 2010 :347).

5) Damasio, A.(1999)의 용어

다. 이러한 몸 인식 과정에서 무용의 핵심 요소인 상상은 몸 인식이 자아의식으로 연결되는데 핵심능력으로 기능한다.

상상(창의)력을 필수요소로 한 무용 구조에서 몸 인식은 감각으로 느낀 몸에 대한 단기적 기억이 체화된 지식을 동반한 지각 활동을 통해 몸이 재구성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 과정에서 상상력과 창의력은 몸의 재구성 과정에서 직관 혹은 첫 번째 감각 기억을 억제하고 시간이 소요되는 다른 기억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지식을 최대화하여 추론하는 방식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가 담긴 몸 이미지를 만든다. 이 과정에서 언어가 아닌 이미지로의 몸 인식은 자아 감각으로 느낀 느낌을 자신의 몸에 심상으로서의 심적 패턴[6]으로 저장한다.

자아는 느낌을 느끼는 것에서 확실해 진다. 따라서 자아감각으로의 몸 인식은 상상력과 창의력이 주요 요소인 무용의 정신활동 구조에서 자아의식 어떤 한 층위이다.

Ⅲ 자아의식과 정서의 연계성

자아가 한 개인의 특별성과 유일한 행동 방식을 토대로 한 정체성으로 대변될 수 있다면 무용의 구조에서 자아의식은 한 개인의 자아감각으로 인식한 명확한 몸 인식과 관련된 마음의 일부를 의식하는 것을 일컫는다.

고대 그리스어로 숨과 피를 뜻하는 'psyche'가 지금은 마음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생리적 감각 기능의 몸을 넘어서 이미지 생성을 동반하는 'somatosensory'의 연원을 몸을 뜻하는 'soma'에서 찾는 연유는, 자아감각의 대상이자 주체인 몸에 대한 인식은 심적 패턴인 이미지 기억인데, 상상력이 만드는 이미지는 지금의 자아가 과거와 미래의 장소와 연계하여 새롭게 구성된 자아의 심적 패턴이라는 논리에서이다.

'자아의식'이 '자아 감각을 가진 의식'이라면 인간의 모든 의식은 자아의식으로 설명 되어질 수 있다. 따라서 무용의 구조에서 몸 인식을 통한 자아의식은 자아가 표현되는 틀로서의 의식이며 그 틀 안에 담긴 자아는 감각과 직관이 인식한 자아의식을 토대로 더 나은 미래를 지향한다.

> 의식이 가치 있는 이유는 개별 유기체의 생명에 지식을 집중 시키는데 있다.
> '앎'의 행위에서 자아의 이미지적인 측면은 유기체에 이익이 된다. 이 측면은 모든 행

6) "나는 이미지라는 용어를 항상 심상(mental image)이라는 뜻으로 사용한다. 이미지와 동의어는 심적 패턴이다"(Damasio, A., 고현석 역, 2023: 439).

동과 인지장치를 자기 보존 쪽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타자와의 협력 쪽으로 지향하게 하기 때문이다(Damasio, A., 고현석 역, 2023:418).

의식의 가치가 지식을 자신의 생명적 이익은 물론, 타자와의 협력으로 집중하게 하는 것이라는 논리에서 무용의 구조에서 몸 인식은 기억 지식 즉, 체화된 지식이 역사성에 기반을 둔 시대사회 의식에서 예술(무용)과 동정심으로 발현한다.

1. 의식의 기능

무용 구조에서 몸 인식은 몸을 감각한 느낌을 바탕으로 보지 못한 것을 상상하는 정신력이 자아 고유의 심적 패턴을 생성하고, 현재의 몸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기대하는 미래의 희망적 자아를 통합한 몸 이미지의 생성 단계에서의 자아의식이다.

상상력을 기반으로 생성한 이미지는 몸 인식의 다음 단계에서 아직 마주해 보지 않은 각각의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스스로 결정한 마음의 패턴이다. 자아의식은 현재의 나와 과거의 기억 그리고 미래의 시간과 공간을 연계하는 능력으로, 의식(cosciousness)[7]은 지금, 여기에 대한 자아감각을 몸에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정체성 같은 특별하고 유일한 자아감각도 제공한다. 몸 인식이 자아인식으로 연장되는 무용구조에서의 몸 인식이 특별한 이유는 의식이 갖는 철학적이고 또 사회적인 긍정적 기능 때문이다. Damasio, A.(고현석 역, 2023:416)는 "의식은 마음의 범위를 넓히고 그로 인해 더 넓은 범위의 마음을 가지게 된 유기체의 생명을 더 좋은 상태로 만든다. 의식이 가치 있는 이유는 그것이 항상성 유지를 위한 새로운 수단을 도입한다는데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개념의 의식은 몸의 특성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그 특성의 내용이 될 수는 없다.

> 확장 의식은 인간 유기체가 자신의 정신적 능력의 최고치에 이를 수 있게 해준다. 이런 능력에는 유용한 물건을 만드는 능력,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고려할 수 있는 능력, 집단의 마음을 지각하는 능력, 단지 고통을 느끼고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워하는 능력,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서 죽음의 가능성을 지각할 수 있는 능력, 삶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능력, 쾌락과 고통과는 별개로 선과 악에 대한 감각을 구축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과 집단의 이익을 고려할 수 있는 능력 단순히 쾌락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진실에 대한 감각의 원천이 되는 능력이다) 등이 있다(Damasio, A., 1999, 고현석 역, 2023:323).

[7] Damassio는 핵심의식(core consciousness)과 확장 의식(extended consciousness)으로 구별하여 사용한다.

의식이 내포한 뛰어난 능력은 생존 관련 이익과 손해를 초월하는 것 그리고 진실 추구와, 비판적 탐색 의지, 기준과 이상을 구축하려는 욕구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다. 철학과 심리학의 영역에서 그러한 의식을 양심(conscience)이라는 개념으로 축약된다면 무용의 구조에서 몸 인식을 통한 자아의식은 지금의 나를 근저로, 미래의 나를 기대하는 상상력으로, 자유로운 몸 즉, 분류될 수 없는 특별하고 유일한 자아를 직시하는 자아의식이다.

2. 정서 표현체로서의 몸

우리는 생각의 내용과 기억의 결과물을 알기는 하지만 그 결과물을 내놓는 과정을 알지 못할 수 있다. 자아의식은 정체성이나 몸 인식의 결과로 이미지가 생성될 때 동반되는 느낌의 틀 혹은 외피이다. 그리고 자아의식에서 그 느낌의 내용은 정체성 혹은 정서일 수 있다.

보편적 정서인 행복이나, 슬픔, 공포, 분노, 놀라움 등의 느낌, 자부심이나 죄책감과 같은 사회적 정서, 안녕, 조용함, 긴장, 불쾌감과 같은 배경 정서 그리고 욕구나 욕망, 의욕이나 고통 그리고 즐거움의 상태 모두 느낄 수 있지만 그 느낌이 생기는 과정과 항상성의 장치에 의해 새롭게 만들어지는 정서의 과정을 알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정서, 느낌, 의식이라는 세 가지 현상의 확실한 점은 세 현상 모두 몸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모든 정서는 몸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정서는 몸의 내부 환경은 물론 장과 정전계, 근 골격계 등과도 관계가 있다. 이러한 정서의 표현을 변화 시키고 각각의 정서에 부여하는 의미는 학습이나 문화에 따라 변화가 가능하지만 정서 자체는 생물학적으로 결정된 과정으로 선천적으로 설정된 뇌 장치에 의존한다는 것이 인지심리학의 설명이다.

> 정서는 화학 반응과 신경반응의 복잡한 집합이며 정서는 유기체의 생명, 구체적으로는 그 유기체의 몸에 관한 것이며 정서의 역할은 유기체의 생명 유지를 돕는 것이다. 모든 장치는 의식적인 숙고 없이 자동적으로 관여된다. 정서의 근본적인 전형성, 자동성, 조절목표는 달라지지 않는다.(83). 정서의 생물학적 기능은 두 가지다. 첫째 기능은 유도 상황에 대한 특정한 반응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둘째 기능은 특정한 반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유기체의 내부 상태를 조절하는 것이다(Damasio, A., 1999, 고현석 역, 2023:83,86).

정서는 주변 환경에 자아를 드러내는 장치로 복합적이고 일시적인 마음의 항상성 조절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생물학적 죽음의 조짐인 완결성의 상실 또는 죽음 자체를 피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장치이기도 하다. 이렇게 정서를 작동시키는 마

음은 내부가 아닌 마음 밖의 사물에 관한 지향성(intentionality)이다. 외부환경에 의존도가 높은 마음의 항상성은 몸 상태의 안정을 유지시키는 생명체의 특유하고 조직화된 생리적 반응 중 하나이다. 몸의 구조와 작동의 불변성 때문에 몸은 안정성을 나타낸다. 몸이 마음의 항상성인 정서의 표현체인 증거는 몸의 자세, 움직임의 속도, 움직이는 윤곽, 눈동자 움직임의 빈도와 속도, 얼굴 근육의 수축 정도의 미세한 변화로 불쾌감, 조용함, 긴장 같은 정서를 탐지해 낼 수 있다는 데 있다.

자아 정체성의 구성 요소에서 개별성 혹은 고유함과 특별함은 인간성(personality)이라고 말하는 보편적 요소와 차별화되는 것 중 하나인 특질(trait)과 관련이 있다. 개인의 성질(temperament)은 이런 특질의 모둠으로 거의 태어나자마자 관찰된다. 이러한 개인의 성질은 삶에서 정서적 반응과 지적인 반응의 일관성에 관여한다.

각자가 자신에 대해 하는 생각, 즉 우리가 물리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누구인지, 사회적으로 어디에 어울리는지에 대해 점차적으로 구축하는 자아의 이미지는 수년, 수십 년에 걸친 몸 기억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또한 지속적으로 다시 만들어 진다. 또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자아 이미지는 사물과 사건의 연결로, 자아가 경험하는 그 사물과 사건의 이미지화 된 심적 표상이다. 심정 표상인 이미지가 만들어질 때 기능하는 것이 창의력이며, 이미지의 내용이 되는 자아의 경험이 느낌이고, 나타내는 것이 정서로 느낌과 정서 모두를 포함한 것이 감정(affect)이다. 따라서 정서는 경험한 느낌을 모두 표현하지 않으며 동시에 모든 감정이 느낌으로 기억되지는 않는다. 몸 인식, 정서, 의식이라는 개념이 구축되는 과정에는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스템에는 개인의 성질, 경험으로서의 느낌과 표출된 정서를 포함한 모든 감정이 내적으로 잠재되어 자아의식을 토대로 연결망을 바꾸면 심적 패턴인 이미지는 재구성된다. 정서는 선택된 경험한 느낌이 몸(자아)에 나타나는 것으로, 그 심적 패턴이 우리 몸 이미지 즉 자아를 형성한다.

Ⅳ 결론

본 연구는 사고와 움직임(혹은 행동)이 동시에 발생하는 몸에 대한 추상적 인식이 자아의식으로 명확해 지는 과정에서 무용의 기능에 대한 연구이다.

몸 인식이 자아의식으로 연계되는 과정을, 무용의 요소인 감각과 상상의 기능 구조에서 몸에 대한 자아 감각이 마음의 패턴인 몸 이미지로 연계되어, 몸 인식이 정체성과 정서로 개념화 되는 자아가 의식으로 정립되는 순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무용 구조에서 몸 인식은 움직임의 도구로서의 물리적인 몸을 정신작용의 주요 기능인 상상력과 창의력을 통해 명확하고 실제적으로 몸을 알게 되는 과정이다.

몸 인식은 무용의 요소인 상상력과 창의력이 인식의 구조로 조성되었을 때 정서로 고유성을 갖는 자아의식의 기능을 한다. 무용 구조에서 몸 인식과 자아의식의 유사성은 상상력과 의식의 확장단계가 제공하는 지식의 최대화를 기반으로 한 추론과 경험적 느낌을 넘어선 기대 심리이다. 자아의식에서 정서로 표출되는 자아는 정체성보다는 몸 인식에서 상상력과 창의력을 동반한 개인의 고유성과 특별함에 가깝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아 및 의식 관련 용어들은 무용 용어에서의 몸과 정서, 철학에서 살과 마음 그리고 인지 심리학 용어에서의 자아와 느낌 등의 유사하나 동일하지는 않은 개념어들로 유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무용의 상상력과 창의력 구조에서 몸 인식은 감각으로 느낀 몸에 대한 단기적 기억이 체화된 지식을 동반한 지각 활동을 통해, 몸이 심적 패턴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으로 자아의식의 한 단계이다.

무용의 몸 인식에서 '현재의 나'에 대한 왜곡과 편견을 넘어서게 하는 것은 호기심과 기대심리로, 무용 정신활동의 핵심 요소인 상상력과 창의력이 이미지로(삽입) 구성하는 자유로운 몸을 통해 분류되지 않는 고유하고 특별한 자아를 의식한다.

무용에서 몸 인식이 자아의식으로 연계되는 과정에서 상상력과 창의력 그리고 의식의 유사성 은 지식의 최대치에서 미래를 기대한다는 점이다.

자아의식의 과정에서 의식은 자아가 표현되는 틀로서, 의식에 담긴 자아는 감각과 직관이 인식한 것을 토대로 더 나은 미래를 지향하는 느낌이 몸(자아)에 나타나는 것으로, 그 심적 패턴이 우리 몸 이미지 즉 자아를 형성하는 정서이다.

참고문헌

이정우(2010), **개념의 뿌리들 1**, 일산 : 산해.

한혜리(2014), "무용 체험과 인식과의 관계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5(2)**, 59-72.

_____(2021), "무용의 자기성찰 기능과 구조",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32(3)**, 47-59.

Acemoglu, D. and Johnson, S.(2023), *Power and progress ; our thousand year struggle over technology and prosperity*, 강승진(역, 2023), **권력과 진보 : 기술과 번영을 둘러싼 천년의 쟁투**, 서울 : 생각의 힘.

Damasio, A.(1999), *The feeling of what happens*, 고현석(역, 2023), **느낌의 발견**, 파주 : arte.

Minda J. Paul.(2021), *How to think*, 노태복(역, 2023), **인지 심리학**, 파주 : 웅진 지식하우스.

Roberts, S.(2020), *The power of not thinking*, 조은경(역, 2022), **뇌가 아니라 몸이다**, 서울 : 소소의 책.

Wachier, Brian B.(2017), *Perceptual intelligence*, 최호영(역, 2019), **지각 지능**, 서울 : 소소의 책.